

홍난파에 관한 메모(1)

해제: 홍정수

주의: 이 자료는 음악학술지 <음악과 민족> 제17호(1999년)에도 실려 있다. 여기에는 원래 한문으로 기록된 것이 변환되지 않고 한글로 나온 경우도 있고, 기호가 달리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을 기하려는 독자는 위의 잡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나운영 홈페이지와 『음악과 민족』은 작곡가 나운영 선생님 유가족의 허락을 얻어 그가 남긴 음악자료들을 발표한다. 그 내용은 한국음악사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나운영 선생님은 대단히 견실한 음악자료들을 남기셨다.

자료들은 나운영기념사업회와 나운영 선생님의 큰아들인 나건 씨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음악연구를 위해 자료공개를 흔쾌하게 허락하신 아드님과 나운영기념사업회에 감사한다. 또한 컴퓨터 입력을 위해 수고한 임예리(장로회신학대학교 3학년)와 고민정(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3학기)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나운영은 『양악 150년사』를 쓰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그 흔적은 방대한 메모로 남아있다.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양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그는 양악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기도 했다. 양악사 초기의 많은 인물들이 그에 의해 추적된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최근 인물들에 관한 추적도 빠지지 않았다. 또한 그의 광범위한 관심은 '음악 다방 경영자', '악기제조업자'와 같은 주변적인 상황에 대한 조사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대한 자료수집은 정리하기에 간단치 않은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생전에 『양악 150년사』가 출판되지 못한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으로 짐작된다.

그의 작업은 정확하게 어느 때부터 시작하였는지 알 수 없다. 홍성유와 면담한 내용을 적은 쪽지에 "86. 6. 10. 서부이촌동택 방문"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홍난파 메모는 80년대에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그는 평소에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의 방대한 메모들은 수 십년을 소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운영 선생님의 양악사 정리 작업은 그의 갑작스런 서거로 인해 끝을 맺지 못했다. 그가 남긴 메모들은 그가 계획한 양악사의 범위를 보여준다. 메모들은 모두 쪽지 형태로 남아 있으며, 어느 정도 한 주제를 중심으로 모아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저것 섞여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남아있는 자료들은 앞으로 한국 양악사 정리에 많은 실마리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메모에는 양악사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인물, 사건, 자료들을 볼 수 있다.

그의 양악사 정리는 상당 부분 편년체(編年體) 방식으로 되어 있다. 편년체는 그가 기존에 발표한 글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형태이다. 그래서 그가 한국 양악 150년사를 편년체 형식으로 정리하려 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서술적으로 발표한 글들도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점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 메모들은 모두 편년체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나운영의 기록은 가능한 한 그가 기록한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 맞춤법이 조금 잘못 되어 있는 경우도 그의 기록을 따랐다. 그의 기록과 다른, 해제자의 기록은 각진 괄호로 표기했다. 나운영은 날자 기록에서 정확한 것을 잘 모를 때에 _월 _일과 같은 방식으로 모르는 날자 대신에 빨간 밑줄로 그어 놓았고, 날자가 확인되면 그것을 기입했다. 여기에서 날자가 확인된 상태의 경우는 밑줄을 제거했다. 또한 그의 기록에는 그냥 괄호만 있고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것도 있다. 나운영은 자신이 밝힌 연도의 정확성에 의심이 갈 때에는 이를 물음표로 표시했다. 간혹 해제자가 확인할 수 없는 글자들이 있다. 이 경우는 [미로, 확인했으나 의심스러운 경우는 [기로 표시했다.

나운영의 기록에는 글자를 명료하게 읽을 수 있지만, 간혹 그 의미가 명료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 "洋樂 150年史 (1810-1960)"라고 기록한 옆에 연필로 (1834-1839)?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歐羅鐵絲琴字譜"라고 기록한 후 그 책 속의 한 장인 "第四宣用彼字"를 적어 두었는데, 왜 여러 장 가운데 제4장의 제목만 기록했는지 알 수 없다. 그

러니까 이 메모는 읽는 데에 어느 정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뒷부분에 나오는 흥난과에 대한 홍성유, 김영환 등의 증언들 중 어느 것은 직접 들은 이야기로 보이고 어느 것은 기록된 증언을 읽고 발설한 것처럼 보인다. 모든 쪽지들은 원래 여기에 소개된 대로의 순서가 아닐 수도 있다.

洋樂150年史 (1810-1960)

(1834-1839)? [연필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음.]

- 1712 金老歌齊:燕京記
- 1783 朴趾源:熱河日記(1778?)
- 1795 李德懋:靑莊館全書
- 1810 李圭景:五洲衍文長箋散稿(1810)
聲音爲樂辨證說
歐羅鐵絲琴字譜一第四宣用彼字

1810
+150

1960

- 1876년 2월 2일 朝日 修好條規(丙子修好條約?江華條約) 조인
- 1882년 4월 6일 朝美 修好通商條約 조인
- 1882년 4월 21일 朝英 修好條規 조인
- 1882년 5월 15일 朝獨 修好條約 조인
- 1882년 7월 17일 濟物浦조약과 朝?日 修好條規 續約을 체결
- 1884년 윤5월 朝伊 修好通商條約 조인
朝露 修好通商條約 조인
- 1884년 10월 17일 金玉均?朴泳孝 등 甲申政변을 일으킴
- 1885년 배재학당 설립
- 1886년 이화학당 설립

1887년 *미국공사 알렌이 최초로 축음기를 가져옴
1892년 5월 朝壤 修好通商條約 조인

樂聖 洪蘭坡 -그의 생애와 예술-

그의 메모 중 가장 잘 정리된 부분은 홍난파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 소개된 것은 홍난파 메모의 약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메모의 상단에는 연도 수가 적혀 있고, 한 해에 일어난 사건은 한 장의 쪽지로 처리되어 있다(여기에서 한 쪽지에 적힌 부분은 점선을 표시하여 구분하여 놓았다). 단지 1899-1909년의 사건들과 홍난파가 죽은 이후, 즉 1942년 이후의 기록은 여러 해의 것이 한 쪽지에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소개된 홍난파 자료들은 대략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1) 홍난파에 관한 편년체 기록.
- 2) 홍난파 주변 인물에 관한 면담록, 증언록. 신문 스크랩, 의문 나는 사항을 기록한 것, 홍난파 자료 목록, 기타.

원 자료에는 한 해에 생긴 일들이 날자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순서가 뒤섞인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나운영이 그때그때 알아낸 것을 메모지의 여백이 허락한 대로 기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날자 순서대로 정리한 것은 독자의 편리를 위한 것이다. 또한 독립적으로 작성된 쪽지들도 들어 있다. 그 중 어떤 것은 일정한 해의, 일정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것들도 있다. 일반적인 것 중에는 홍난파에 관한 주변 인물들의 증언이 대부분이다. 편년체로 정리된 내용은 홍난파의 개인에 관한 것이 가장 많지만, 그 이외에도 정치적 사건, 다른 음악가들의 음악회,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 발표 등에 관한 것도 보인다.

樂聖 洪蘭坡 -그의 생애와 예술-, (나운영 저. 세광음악출판사 발행)
[예정이라 생각됨]

[I] 생애편

1898~1916 (18년간)
1916~1924 제 1기 (8년간) (25년간)
1924~1932 제 2기 (8년간)
1932~1941 제 3기 (9년간)

[II] 예술편

연주활동 - Violin 독주, 난파 Trio, 성서 Piano Trio, 경성방송관현악단

작곡활동 - 봉선화, 조선동요백곡집(상편), Violin 독주곡 4편, 조선동요백곡집(하편), 조선가요 작곡집 제1집, 관현악조곡, 나그네의 마음(관현악 부 독창조곡)

문필활동 - 잡지 「三光」, 「音樂과 文學」, 「音樂界」
창작소설 「처녀혼」, 「허영」, 「향일초」, 「폭풍우 지난 후」, 「최후의 악수」, 「청춘의 사랑」
번역소설 「어데로 가나」, 「첫사랑」, 「매국노의 자」, 「나나」, 「청년입지론」

음악만필, 세계의 악성, 악전대요

출판활동 - 통속창가집, 조선정악보 3편, 말 잘하는 사위, 광익창가집, 세계명작합창가집, 조선동요백곡집, Violin 독주곡 4편, 세계명작가곡선집, 조선가요작곡집 제1집, 특선 가요곡집

1898년 瀧濂太郎가 東京音樂學校를 4월에 卒業

4월 10일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활초리에서 홍준(준), 이씨부인(2남 2녀)의 차남으로 출생함.

洪준(1858~1917)

전처 李氏夫人(1858~1908)

후처 朴氏夫人(1886~1917)→ 季厚 敏厚

↓
錦坡 錫厚 → 1載裕 2恩裕 3盛裕 4志裕 5建裕

蘭坡 永厚(1898~1941)

|
전처 金祥雲(1898~1926) → 淑任(1918~1984)

후처 李大亨(1913~) → 玎任(1937~)

|
*南陽 洪氏 世譜 中卷 p.803~805 참조

*1899 _월 _일 온 가족이 서울에 올라와 형 錫厚집(정동 14번지)으로 이사함.

1900~1909

*1900년 3월 19일 고종황제 · 러시아 군악대 접견, 연주를 들음(대원 40명)

12월 _일 군악대 설치

*1901년 2월 19일 에켈트 입국

*1907년 4월 27일 머킨스嬢(Violin)와 보나비아 헌트嬢의 대음악회가 열림(여관 에스토하우스에서)

*우리나라에서 열린 최초의 양악연주회

*1907년 _월 _일 梨花합창단의 할렐루야(헨델 작곡) 공연(YMCA 강당)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이등박문을 사살함

1910 9월 중앙기독교청년회학관(YMCA) 중학부에 입학함.

*8월 22일 한일합방조약 조인

*8월 29일 한일합방조약 공포

보통교육창가집 발간

1911 (→1915?) _월 _일 우연한 기회에 Violin과 호만 제1권을 7원 50

전에 사게 되었다. 하루만에 간단한 찬송가의 Melody를 흥내낼 수 있었다.

9월 1일부터 조선 정악전습소 교사인 金仁滉 선생에게 Violin Lesson을 받기 시작함. 12월까지 호만 제1권을 마치고 12월 23일 밤 세브란스 의전 강당에서 열린 「성탄 축하 음악회」에 Violin 독주를 함. (E선과 A선만으로 무반주로)

1912 한 해에 30회 이상 각 교회를 순회연주함.

1913 4월 조선정악전습소 서양악부(성악과)에 입학

1914 3월 조선정악연구소를 성악과를 졸업함.(2회)
3월 중앙기독교청년회 회관(YMCA) 중학부를 졸업함.
겨울(12월 22일) 京城讚揚會(김인식 선생 지휘)
성탄축하 대음악회 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헨델의 「할렐루야」를 초연했다 (YMCA 대강당)
11월 13일 사위 洪文吉 출생(음력 1914. 9.26)

1915 1월 조선정악전습소 서양악부 기악과를 졸업(3회)함
*_월 _일에 金祥雲(1898~1926)과 결혼함
8월 30일 경성찬양회 주최 음악회가 열림(YMCA강당)
김인식, 홍난파, 김형준, 김영환, 정대인, 이정희 등 출연

1916 1월 조선정악전습소 서양악부 교사에 피임됨(2년간 근무).
*에케르트 別世(8월 6일)
8월 12일 중앙예배당 안의 사립 영신학교 분교실에 「음악 강습소」를 차려 악리.음계 연습.유행 창가 교습을 지도함.
통속창가집(초판) 출판(10.20)
악전대요 출판(4.10)

1917 12월 조선정악전습소 서양악부 교사를 사임함.
새문안교회 집사 임명받음(김인식, 이상준, 김형준, 홍석후와 함께).

*崇實大學 음악대원(18명) 음악회 개최(YMCA강당)
동속창가집(재판) 출판(3.30)
조선정악보 3편 출판(8.9)
말 잘 하는 사위(滑稽창가) 출판(., .)

1918 4월 일본. 동경음악학교 예과에 입학함
1월 5일(음력 1917.11.15) 첫째 딸 淑姬 출생.

1919 3월 일본 동경음악학교 예과를 수료함.
10월 13일 YMCA를 중심으로 京城樂友會를 조직하여 京城樂友會 창립연주회를 YMCA 강당에서 개최함(홍난파.김형준.김영환)
* _월 _일 3.1 운동으로 인해 왜경의 눈을 피해 귀국.
기미독립만세 사건이 터지자 자기 Violin을 저당 잡혀 독립운동을 외치는 전단을 만들어 뿌리다가 왜경의 추격을 받게 되자 귀국했다. 그 후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음인지 음악보다는 문학에 심취하여 세계문학전집을 닦치는대로 독파, 그 중에서 몇 작품을 번역, 출판했다.(1920년 5월 두번째로 渡日하기 전까지)

12월 13일 경성악우회 제1회 음악 대연주회(YMCA강당) 때에 Violin 독주를 함.

경성악대(이왕직 양악대의 후신).Fl.독주.하모니카 독주 VI.합주,만들린 독주(최동준),독창(김인식) (김형준)

잡지 「三光」 창간호 출판(2.10) → 제4호로 폐간됨.

*2월 8일 2.8 독립 선언

*3월 1일 3.1 독립선언서 낭독

1920 4월 28일 「哀愁」 를 작곡함
正初에 두번째로 渡日했으나 동경음악학교 본과 진학을 거절 당해 일시 일본대학에 적을 두었다가 다시 귀국함

※渡美 유학을 계획했었으나 좌절됨

*5월 4일 柳兼子 독창회(YMCA 강당)

박태준 작곡 동요 「기러기」

5월 24일 「전조선 순회음악단」 組別을 조직함(매일신보사 후원)

10월 2일(?) 홍난파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11월 13일 단성사에서 음악 대연주회를 개최함

김영환.홍난파.최동준.김형준.박태원.경성악대 출연
광익창가집 출판(12._)

1921 드디어 소설을 쓰기 시작함. 이것이 제1창작집 「처녀혼」이다.
6개의 단편으로 되어있다

1. 처녀혼
2. 구두쇠의 모델
3. 비열한 자
4. 大火
5. 새벽중
6. 최후의 악수

이 모두가 깊은 민족의식과 기독교적 신앙이 토대가 됨

5월 _일에 세번째 渡日. 동경에서 열린 「폴란드(파란) 고아 구제
대음악회」의 독주자로 뽑혀 3천여 관중 앞에서 독주를 했다.(神田青年
會報)

※三請까지 받았다. (石三義와 함께)

9월 3일 창조사 주최.매일신보사 후원으로 음악대연주회가 개최
됨.YMCA 강당. (윤심덕,홍난파,太田忠 등 출연)

어데로 가나(센쿠위츠 작, 홍난파 역)

잡지 「음악과 문학」(홍난파·황석우 편집) 창간(2._) ← 樂友社
발행

제1창작집 「처녀혼」 출판(_._)

1922 *_월 _일에 다시 귀국하여, 9월에 연악회를 창설함

제1회 입학생은

1. 정재희()
2. 김수호()
3. 홍은유(洪恩裕)
4. 홍성유(洪盛裕)
5. 백남진(白南鎭)
6. 한 용()
7. 곽정순(郭正淳)

8.

※22년에는 獨逸 여권을 신청하였으나 실패함

9월 9일 경성순회악단(단장 홍난파)이 천도교회당에서 음악회를 개최함

*思友(박태준 작곡. 이은상 작사) 작곡

첫사랑(트루게네프 작. 홍난파 역) 출판(1. 1)

「최후의 악수」 출판(1. 1)

중편소설 「虛榮」 (1. 1)

1923 *5월 23일 크라이슬러 독주회(공회당에서)

6월 14일 정동계명음악원 음악회가 개최됨. 한국 최초로 관현악 반주로 합창연주를 함.(지휘 홍난파)

*8월 2일 경성악대 양악연주회

*9월 1일 關東大震災事件

*10월 안병소 제1회 Violin 독주회(養明會 주최 YMCA 강당)

*11월 5일 하이페츠 독주회(공회당)

12월 17일 「베토벤 탄생 150주년 기념음악회」가 개최됨(YMCA 강당)

※Beethoven Violin Sonata No.1을 연주함.

매국노의 자(스텔만 작. 홍난파 역) 출판(1. 1)

제 2창작집 「向日草」출판(7. 1)

청춘의 사랑(홍난파 저) 출판(5. 1)

靑年立志論 - 일명 自助論(스마일스 원작. 홍난파 역) 출판(1.30)

제 3창작집 「폭풍우 지난 뒤」 (1. 1)

1924 1월 19일 최초의 제 1회 Violin 독주회를 개최함(YMCA 대강당)

연주곡목 Violin Sonata No.2 (Grieg) 전악장

Violin Concerto No.1 (Bach) 제 1,2악장 외 8곡

*5월 11일 연희전문음악회

*6월 14일 경성 醫專 음악부 주최 음악연주회

11월 20일 「악성 짐발리스트의 來京을 기하야」 발표(조선일보)

*11월 27일 짐발리스트(Zimbalist) 독주회

11월 3일 研樂會 낙성식
_월 _일 研樂會 주최로 「베토벤 탄생 150주년 추모의 밤」 의
개최됨

*고드름(유지영 요.윤극영 작곡) 8월

*반달(윤극영 작곡) 11.9

김발리스트 來演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음악평론을 발
표함.(11.20)

나나(줄라 작.홍난파 역) 출판(._.)

1925 *2월 14일 프레미슬라우(Premilaus) Cello 독주회

*2월 11일 존스(Johnes) Tenor 독창회

3월 25일 연악회 제 2회 입학생 수업식을 거행함(8명)

4월 27일 음악잡지 <음악계>를 창간함.

4월 28일 연악회 기념음악회 - 音樂界 창간 기념 (YMCA 강당)

6월 21일 연악회 주최 春期音樂演奏會가 개최됨.(YMCA)

9월 26일 YMCA 홀에서 제 2회 Violin 독주회를 개최함.

(Violin Concerto-Rode, Zigeunerweisen 외 12곡

12월 18일 「기악곡의 大王 樂聖 베토벤 탄생기념음악회」가 개
최됨(YMCA)

홍난파.韓琦柱="" 여성="" 5중창(이화학당)="" 출연=""

12월 21일 「과거 1년 악계를 회상하며」 발표(동아일보)

研樂會(경성. 서대문정 1의50)

*잡지 「音樂界」 창간호 출판(4.27)

*잡지 「音樂界」 제 2호 출판(6. _) → 4호로 폐간

*세계명작합창가집(등사본) 출판(._.)

1926 2월 11일 연악회 주최 그랜드 콘서트를 개최함.(YMCA 강당)

편성은 Violin 4 (홍난파)

Cello 1

Mandolin 2 (홍재유, 홍지유)

Sax. 1

남성독창 金亨俊

Violin 독주 홍성유, 홍난파

Piano 독주 김원복, 박경호, 朴仁德
 Sax. 독주 白命坤
 Piano Trio 박경호, 홍난파, 白命坤(Cello)
 여성독창 아펜세라
 맨들린 二重奏 최동준, 홍재유
 현악합주 연악회원

- *4월 9일 러시아 Cellist 씨케이 스테핀(Stupin) Cello 독주회
- 5월 11일 연악회 제 3회 수업기념음악회를 개최함.
- 5월 13일 처 金祥雲이 사망함.
- *6월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작곡집 「윤극영 작곡, 반달」 출판
- 9월 _일 네번째로 渡日, 일본 동경고등음악학원 본과에 입학함.
- *10월 12일 폴리스 랫츠 Violin 독주회(공회당)
- 12월 1일 中央樂友會 탄생(박경호, 최호영, 홍재유 등이 주축)
- *잡지 「音樂界」 제4호 출판(2.1) → 제4호로 폐간됨
- *세계의 악성(초판) 출판(. .)

1927 동경 심포니 오케스트라(新交響樂團?) 제1바이올린 주자로 입단함

- 2월 12일 팔로 여사(Mrs. Palow) Violin 독주회
- 5월 7일 기타인 형제 Violin, Piano 대연주회(조선히텔)
- 5월 9일 기타인 형제 Violin, Piano 대연주회(公會黨)
- 5월 26일 A. 빠르노 Violin 대연주회(대구, 조양회관 강당)
- 5월 29일 關屋敏子 독창회(공회당)
- 6월 1일 단성사 관현악단 조직(지휘:백우용/첼로. 임정화)
- 8월 9일 조선극장 소속 「조선관현악단」 창단
 단원 20명의 우리나라 최초의 관현악단
- 10월 동요곡 「고향의 봄」 을 작곡함
 (윤극영 작곡 「반달」 은 1924년 작곡되었음)
- 11월 16일 미하엘 엘텐코(Enrico) Violin 독주회(공회당)
- 11월 25일(1923. 10.?) 신동 안병소 독주회

1928 동경 「新交響樂團」 제 1바이올린 주자로 입단함

- *2월 4일 제1회 城大 연주회

- *2월 10일 「조선음악가협회」 조직
- *2월 21일 李俊善 Violin 독주회(반주:베이커 女史)
- *3월 3일 중앙악우회 제 1회 관현악단 연주회(Boots 부인 지휘)
- *3월 31일 高勇吉 Cello 독주회
- *5월 11,12일 「외국인학교 자선가극회」가 개최됨(모리스 홀)
- *5월 12일 權泰浩 독창회
- *7월 1일 鈴木 String Trio 연주회(공회당)
- *9월 10(2?)일 安基永 귀국 독창회
- *9월 12일 안익태 Cello 독주회
- *11월 16일 김재훈 Violin 귀국 독주회
- *12월 14일 「국제음악연주회」가 개최됨(정동 예배당)

- 1929
- *1월 25일 「모리스 홀의 음악의 밤」이 개최됨
 - 3월 22일 일본 동경고등음악원 본과를 졸업함.
 - *4월 13일 山田耕作 작품발표연주회(공회당)
 - ※ 里柳守綱(Vl.), 淺野鶴子(Sop.) 찬조출연
 - *4월 20일 채동선 독주회(제1회)
 - 5월 研樂會 부활
 - *5월 20일 「구라과 명곡연주음악애호의 밤」(모리스 홀)
 - *8월 17일 「하이든 현악4중주단」대연주회(공회당)
 - *여름 _ _ Korean Jazz Band 제3회 연주회(YMCA)
 - _ _ Korean Jazz Band JODK 방송
 - *서울에서는 Jazz 방송이 처음이다
 - 9월 중앙보육학교 음악과 주임교수에 취임함(홍성유, 김원복과 함께)
 - 9월 9일 「서양음악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발표(조선일보)
 - <3회 연재>
 - *9월 27일(2.27? 8.19?) 현제명 귀국 독창회(공회당)
 - 10월 26일 조선동요백곡집(상편-25곡) 등사본 출판
 - *11월 14일 藤厚義江 독창회
 - 11월27일 「채동선군의 귀국 독주회를 앞두고」 발표(동아일보)
 - *_ _ 연악회 인천.개성.김해에 지부를 설치함

* _ _ 세계명작가곡선집(등사본) 출판

- 1930 *4월 12일 리비(N. L. L. we) 독창회 (L. Kochanski 반주)
4월 23일 조선동요백곡집 상편(인쇄본) 초판 출판
6월 19일 동경고등음악학교 출신 「신인환영연주회」 가 개최됨
(YMCA 강당)
출연자 - 홍난파, 홍성유, 김원복, 안익태
Piano Trio(홍난파, 김원복, 안익태)
독주(홍성유, 김원복, 안익태)
7월 5일 納량音樂大會가 개최됨(YMCA)
-봉성전문학교 학생회 주최(홍난파, 홍성유, 안익태, 안기영 출연)
7월 29일 「음악의 기초지식」 발표(조선일보) <8회 연재>
8월 12일 잡지 「音樂과 時」 창간
9월 13일 안테루 코레만 Cello 독주회(공회당)
11월 11일 「중앙보육학교 제3회 교내음악 대연주회」 를 개최함
홍난파, 현제명, 채동선, 김원복, 김영의, 독고선, 홍재유, 황재경, 徐錦榮
研樂會(경성, 종로 2丁目 45)
- 1931 1월 28일 「음악과 계급의식」 발표(동아일보) <3회 연재>
*잡지 「東光」 1월호에 「중앙악단의 가을시즌」 발표
2월 11일 조선음악가협회 상무이사에 취임함
2월 20일 「유모레스끄」 발표(조선일보) <2회 연재>
*잡지 「東光」 2월호에 「음악가로서 본 세인의 청각」 발표
*잡지 「東光」 3월호에 「악실여운」 발표
*4월 14일 郭正淳 Violin 독주회(뿌스夫人 반주) (모리스홀)
4월 23일 조선동요백곡집(하편) (등사본) 출판
4월 24일 「악리초보를 읽고」 발표(조선일보) <2회 연재>
5월 28일 「제1회 조선음악가협회 음악회」 가 개최됨(공회당)
※현제명, 안기영, 채동선, 최호영, 홍난파, 임성의, 채선엽, 김원복, 중앙악우회 회원 등
6월 2일 바이올린 독주곡 「로만스」 , 「애수의 조선」 , 「동양

풍무곡」, 「하야의 성군」 출판

6월 16일 도미송별음악회를 개최함(경성공회당)

6월 27일 목포에서 개업 중이던 의사 홍재유(조카)의 주선으로
도미송별음악회를 개최함(목포, 貞明女學校 강당)

7월 4일 평양에서 「고별연주회」를 개최함

7월 30일 고헌경, 변영로 씨와 함께 미국유학을 떠남

7월 31일 조선동요백곡집(상편) (인쇄본) 재판 출판

8월 5일 채동선 Violin 독주회(제2회)

8월 6일 미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船上獨奏會〉를 개최함

8월 18일 「하와이」에서 미술관 주최로 노천극장에서 독주회를
갖었는데 때마침 비가 와 모두들 우산을 쓰고 끝까지 경청하였다고 한
다. 그런데 끝곡은 「고별의 노래」였다.

9월 미국 시카고시 Sherwood 음악학교 연구과에 입학함(Violin
을 Marinus Paulsen 박사에게 사사)

*11월 29일 京城帝大 학우회 음악부 주최 「교향악의 오후」(음악
회) 개최

* _월 _일 金亨亮(~1947.11.21). 정춘모 부부음악회(모리스홀)

_월 _일 세계명작가곡선집(등사본) 4판 출판

_월 _일 세계명작가곡선집(인쇄본) 출판

1932 *3월 15일 채동선 Violin 독주회(제3회)

*3월 27일 大東音樂協會 창설(창설자 金禎洵)

*5월 20일 연희전문 음악부 주최 「Haydn 탄생 200주년 기념음
악회」 개최

*6월 11일 연희전문 음악부 주최. 동아일보 후원 「제1회 전조선
남녀중등학교 현상음악대회」 개최(11개교, 80명 학생 참가)

6월 Sherwood 음악학교 연구과?를 졸업함. 음악학사 학위를 받
음

*7월 16일 조선음악교육연구회 주최 「제2회 하기 창가강습회」
개최

(진명여고 강당)

*8월 2일 연희전문음악부 주최 「제2회 전조선 남녀하기음악강
습회」 개최

(10일간)

*10월 채동선 가곡발표회(이전 강당)

*11월 27일 경성제대 학우회 음악부 주최 「Haydn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 개최

*12월 1일 정훈모 제1회 독창회(공회당)

*12월 8일 조선음악가협회 주최 「조선악단에 20년을 존속해 온 金仁湜.金亨俊.李尙俊의 공적을 기리는 음악회」 개최

1933 *1월 20일 독일 루즈뵐 市 음악당에서 계정식 Violin 독주회가 개최됨

*1월 _일 미국에서 귀국함

2월 20일 「홍난파 귀국 환영 음악회」

2월 22일 홍난파 氏 환영회 (인사동 太西館)

*2월 23일 전형철 제1회 독창회(공회당)

3월 20일 연악회 부흥(동아일보 기사)

3월 25일 김문보 독창회

3월 중앙보육학교 교수를 사임함

잡지 「新家庭」 5월호에 「자장 노래에 대하여」 발표

5월 6일 귀국 Violin독주회를 개최함 (경성공회당에서)

Sonata No.2(Grieg) 전악장

Concerto No.1(Bruch) 전악장

Concerto (Mendelssohn) 전악장

5월 16일 조선가요작곡집 제1집 출판

4월 경성보육학교 교수에 취임함

조선동요백곡집 하편 (인쇄본) 초판 출판

「홍성유군 부처 연주회」 공회당

5월 30일 「박경호씨의 시연을 듣고서」 발표 (조선일보)

6월 난파 Trio를 조직함 (홍난파, 홍성유, 이영세)

*洪盛裕(1908~1936), 李永世(19[] 지위집)~1988)

6월 14일 本町2가 진고개에 있던 「明治製菓홀」 에서 난파 Trio의 첫 발표회(試演會?)를 가졌다. 난파 Trio는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악 운동」 의 하나이다.

※경성에 있던 음악가를 비롯해서 사회명사 70여명을 초

대했다 (홍종인, 이해구도 참석했다) - <김영환 선생 증언>

7월 12일 경성보육학교 순회연주

- 13 信川, 14 황주, 15 평양, 17 진남포, 18 선천, 19 신의주, 20 안동縣, 21 開原, 22 奉天

9월 15일 「난과 Trio 제1회 공연」 (貞洞 모리스 홀)

- 室內樂의 밤

10월 10일 홍난파.현제명 작곡 발표회를 개최함.(이화여전 강당에서)

11월 2일 「李升學 氏의 평을 읽고」 발표 (조선일보) <2회 연재>

11월 4일 제 2회 난과 Trio (홍난파. 홍성유. 이영세)연주회를 개최함 (경성.YMCA강당)

「박경호氏 의 試演을 듣고서」 발표 (동아일보)

1934 잡지 「어린이」 1월호에 「모짜르트」 발표

2월 2일 「음악야회」 발표(동아일보) <21일 연재>

잡지 「어린이」 2월호에 「쇼팽」 발표

3월 1일 「방송순수를 충실이 하라」 발표(라디오 세계)

잡지 「어린이」 3월호에 「바하」 발표

4월 7일(11.15?) 광정순 도미 송별 Violin 독주회

4월 10일 이인선.이애내.안병소 渡歐 송별음악회(공회당)

(반주-뿌쓰 夫人, 스투데니)

4월 25일 크로이처(Kreutzer) Piano 독주회

잡지 「어린이」 4월호에 「하이든」 발표

5월 4일 정훈모 여사 독창회(공회당)

*5월 12일 「동경음악학교를 졸업한 12명의 졸업생 고국방문음악회」 개최

(동아일보사 부산지국 주최)

- 김영선, 서상석, 박태철, 문하연, 김상권, 김승모, 이용재, 오우현, 주성일, 박경희

*6월 7일 김영의 Piano 독주회

6월 일본 Victor 축음기 주식회사 경성지점 음악주임에 취임함

*음악잡지 월간 「音樂」 (최성두 편집) 創刊 (7월호)

9월 18일 「조선예원에 격함」 발표(조선일보)

10월 5일 현제명 교수 독창회(공회당)
 *10월(?) 계정식 귀국 Violin 독주회(공회당)
 10월 30일 경성보육학교 綠羊會 「제2회 추기 대음악회」
 Violin 독주 - 흥난파
 잡지 「신가정」 11월호에 「모과수 30통」 발표
 잡지 「신가정」 12월호에 「가정음악에 대하여」 발표
 12월 27일李大亨 양과 결혼함(재혼)

1935 *2월 8일 김메리 Piano 독주회(Morris Hall)
 *2월 24일 경성관현악단 연주회
 *3월 9일 계정식 氏 귀국
 *5월 15일 계정식 독주회(공회당)
 *6월 21일 김영의 도미 송별 Piano 독주회
 *6월 26일 짐발리스트(Zimbalist) 독주회(평양 白善行 기념관에서)
 *6월 29일 在東京音樂家協會('34년 6월 조직) 주최
 고국방문음악회 개최(서울.평양.대구)
 7월 6일 「음악가의 생활안정책」 발표(조선일보)
 9월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 강사에 취임함
 9월 13일 「전조선음악콩쿨을 앞두고」 발표(조선일보)
 *9월 19일 조선일보 주최 「전국남녀현상콩쿠르대회」 개최
 (심사-흥난파, 김문보, 박경호)
 성악 공동 2등 - 이인범, 고종익
 바이올린 1등 - 문학준
 9월 25일 「악실여운」 발표(중앙일보) <7회 연재>
 *10월 8일 현제명 박사 독창회 (仁川.山牟[?]町 공회당)
 *11월 2일 京城保育學校 주최 「제 3회 추기 음악회」
 Violin 독주 - 흥난파
 *12월 12일 계정식 박사 Violin 독주회(조선일보 강당)
 (반주 - 알마 마리아 콜러 양)
 Beethoven:크로이체르 소나타/부르흐 바이올린 협주곡
 의 5곡
 12월 16일 「베토벤의 탄생 165주년 기념」 을 발표(중앙일보)
 잡지 「朝光」 12월호 「飲食天國」 발표

- 1936 1월 1일 「올해 악단을 회고함」 발표(중앙일보)
 잡지 「中央」 신년호에 「이별의 소야곡」 발표
 *1월 26일 平壤音樂協會 조직(권태호 氏 발기)
 *1월 29일 계정식 독주회(仁天 공회당)
 3월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 강사를 사임함
 *4월 4일 「코리아 음악연구소」 창설(홍난파.박영근.이승연 주재)
 성악.바이올린.피아노.악리과 설치
 4월 7일 특선가요곡집(2본, 15판) 출판
 *4월 10일 잡지 「音樂評論」 창간
 *4월 24일 계정식 현악 4중주단 제1회 연주회
 (계정식.박태철.안성모.김인수)
 *4월 박경희 독창회
 *5월 15일 「조선음악가협회 제1회 대연주회」(부민관)
 ※계정식.박경희.박태철.채선엽.김한철.박경호.이승학.이
 미사호.김인수.김메리.안성모.안춘자 등
 *5월 20일 제4회 정훈모 여사 독창회
 5월 26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함(무단전재)
 잡지 「中央」 6월호에 「로레라이」 발표
 잡지 「신가정」 6월호에 「악성의 최후」 발표
 잡지 「新東亞」 6월호에 「동서양 음악의 비교」 발표
 *6월 29일 티보 독주회(부민관)
 잡지 「中央」 7월호에 「양상비곡」 발표
 잡지 「中央」 8월호에 「고별의 노래」 발표
 *8월 1일 白高山 독주회(평양)
 8월 18일 洪盛裕 氏 別世
 ※난파 Trio 해체
 *8월 21일 김인수 Cello 독주회(원산악우회 주최)
 잡지 「中央」 9월호에 「악단 4반세기의 회고」 발표
 9월 23일 YMCA 소년부 주최 〈제1회 전조선 소년소녀현상동요
 대회〉 합창지정곡 「고향의 봄」 과 「개골이」 가 포함되어 있고, 자유
 곡에 10곡이 들어 있었다
 10월 26일 平壤音樂協會 조직(권태호 氏 발기)

1937 2월 3일 전형철 신춘독창회(부민관)

※경성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지휘/홍난파)

이흥렬.김준영.淸水幹三.안성교.훗스.박태철.윤낙순.이매상.최호영.김태연.本管伸夫.림재호.이승용.이점재.윤기향.이해성.이건호.중야수에

*2월 23일 엘만 독주회(부민관)

*4월 25,26일 모기레프스키.로히텐베르히 연주회

*5월 14일 「현재명 귀국독창회」 (부민관)

*5월 20일 「이인선 귀국독창회」 (부민관)

*5월 26일 三浦 오페라단 「나비부인」 공연(부민관)

三浦環.金永吉.曹永恩 (반주/東京 中央교향악단)

7월 1일 딸 丁姪 출생함

7월 Victor 축음기 주식회사 경성지점 음악주임을 사임함

8월 경성보육학교 교수를 사임함

11월 경성 중앙방송국 양악 책임자로 취임하여 경성 중앙방송국 방송관현악단 지휘자에 취임함

잡지 「女性」 11,12월호에 「재미있는 실내유희법」 발표

城西 Trio 조직 - 홍난파.이흥렬.김태연

*李興烈,1909~1980

金泰淵

12월 10일 「리스트의 일대기」 발표(조선일보) <6회연재>

1938 2월 27일 「재즈음악회의 검토」 발표(조선일보) <3회연재>

3월 31일 「세계의 봄 - 미국편」 발표(조선일보)

4월 15일 유부용 독창회

*5월 10일 「경성음악전문학원」 창립기념연주회

— 경성 음악 전문학원 교수에 취임

*5월 _일 이인선 귀국독창회

잡지 「朝光」 5월호에 「쇼팽과 그의 연인」 발표

*6월 14일 조선일보 주최 「제1회 신인음악회」 개최

「신인음악회 총인상기」 발표(조선일보)

6월 26일 제5회 정훈모 여사 독창회

7월 10일 음악만필 출판
 잡지 「朝光」 8월호에 「문화와 음악」 발표
 8월 22일('39.12.?) [□]淵聖周 Violin 독주회
 *9월 26일 홍지유 Violin 독주회
 *10월 28일 안병소 귀국 Violin 독주회
 10월 30일 「안병소 제금 독주회평」 (조선일보)
 11월 20일 「영화와 음악」 발표(동아일보)
 *11월 _일 이관옥 독창회
 *12월 2일 계정식 현악 4중주단 연주회(계정식.문학준.안성교.김태연)
 *12월 5일 경성음악가협회 제1회 연주회

 1939 3월 3일 「하르빈 교향악단의 연주를 듣고서」 발표(동아일보)
 *3월 22일 시로타(Sirota) Piano 독주회
 *3월 24일? 김영길 독창회
 *3월 26일 하르빈교향악단 연주회(부민관)
 *4월 19,20일 日伊 친선대음악회 (노탈.짜고모 출연)
 5월 3일 「창작작곡발표대음악제 前記」 발표(동아일보) <2회연재>
 *5월 29일 이인선 독창회
 잡지 「博文」 6월호에 「문서의 이유」 발표
 6월 8,9일 동아일보사 주최 <제1회 전조선 창작 작곡 발표 대음악제>에서 관현악 조곡(제1악장/즉흥곡, 제2악장/소선전곡(Rondino), 제3악장/동양풍 무곡을 지휘, 발표함(경성관현악단 연주) 관현악부 독창조곡 「나그네의 마음」 (이은상 사)을 최창근 독창, 홍난 파 지휘로 발표함(경성방송관현악단 연주)
 *6월 10,11일 新交響樂團 연주회(부민관) 로젠슈토크 지휘
 6월 13일 「음악감상법」 발표(조선일보) <3회연재>
 7월 23일 JODK 제 2방송을 통해 Mozart의 Jupital Symphony를 연주, 방송함(홍난파 지휘) - 우리나라 최초의 교향악 전악장 연주임
 잡지 「新世紀」 9월호에 「음악회 수첩」 발표
 잡지 「朝光」 9월호에 「양악조선의 요람시대」
 9월 25일 「신추만필」 발표(동아일보)

- *10월 7일 채동선 Violin 독주회(제 4회)
- *10월 19일 三浦環 お집夫人の夕(府民館)
- 10월 20일 김재훈 Violin 독주회
- 잡지 「文章」 10월호에 「지휘자의 감명」 발표
- 11월 19일 「하대응 독창회 前記」 발표(동아일보)
- 11월 20일 하대응 독창회 (이흥렬 반주)
찬조출연-백조혼성합창단(지휘/박태현)
- 잡지 「신세기」 11월호에 「음악소설 신의 말씀(번역)」 발표
- 12월 2일 이애내 Piano 독주회
- 12월 15일 「조선악단 1년의 회고」 발표(동아일보) <2회 연재>
- 잡지 「朝光」 12월호에 「첫 무대의 기억」 발표
- 잡지 「朝光」 _월호에 「캔사스 역의 봉변」 발표

- 1940 1월 _ 홍난파 선생댁을 방문함 [나운영 자신의 방문을 말하는 것?]
- *4월 _일 李觀玉 독창회
 - *5월 3일 李庚[?]熙 Piano 독주회
 - 5월 20일 「조선문화 20년 - 음악편」 (동아일보) <4회 연재>
 - *6월 15·16일 新交響樂團 연주회(부민관) - 지휘/音藤秀雄
 - 7월 7일 「지나사변과 음악」 발표(매일신보)
 - 9월 1일 「조선영화와 음악」 발표(매일신보)
 - *10월 7일 新京 교향악단 연주회
 - *10월 25일 藤原 오페라단 Carmen 공연
 - *11월 21일

1941 *1월 _일 「조선음악가협회」가 조직되어 주로 군국가요 개창 운동에 주력함

日本人 阿部達一. 岩本政藏
조선인 李鍾泰(鈴木貴一郎)

- *3월 1일 三浦環 독창회(부민관)
- *3월 3일 淑姬과 洪文吉 결혼(YMCA)
- *3월 4·5일 藤原義江 독창회(부민관)
- *4월 28일 李宥善 귀국독창회(제1회) (부민관)
- *4월 30일 송진혁 독창회

*6월 30일 윤두선 작곡발표독창회

*_월_일~_월_일까지 72일간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도산 안창호, 춘원 이광수 등과 함께 그가 미국에 있을 때 홍사단의 단가를 작곡해 주었고, 미국에서 3.1절 기념식을 열어 만세를 불렀다는 것이다. → 민족주의자로 몰림

건성늑막염이 재발(미국 유학시 자동차 사고로 늑골(?)을 타친 일이 있음), 결핵균이 머리로 들어가 고통 끝에 사망.

*7월 15일 회기동에 있는 京城療養院(현 위생병원)에 입원했으나, 7월 25일에 퇴원(10일동안 입원), 5일 후인 8월 30일에 별세함.

〈유언〉 내가 죽거든 꼭 연미복을 입혀서 화장해 달라

8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홍파동 2번지 16호 자택에서 별세함(享年 43세). 유족으로는 미망인李大亨 여사, 淑姬, 丁姬 자매가 있음. 9월 1일 새문안교회에서 영결식을 엄수함. 홍제동에서 화장함.

*홍파동 2번지 16호

한치진 박사에게서 구입함/전면적으로 개조했음/건평43평/수도가 나오지 않았음/바로 윗집이 윤심성.윤심덕.윤성덕 집이고, 그 이웃에 이인선 氏 집이 있다.

*10월 3일 김자경양 독창회

*11월 5일 Mozart 150年 기념 Sonata의夕 계정식. 김원복(부민관)

11월 27,28일 반도 악계건설의 은인 金亨俊 李尙俊 金仁湜 大場 [??]에 대한 射恩音樂會 (부민관)

*12월_일 일본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 對美.英 宣戰布告

1942 ~ ①

1942년 4월_일 李觀玉 독창회

1943년_월_일 경성음악전문학원 廢校됨

1946년 12월 20일 제1회 전국 음악 경연 대회〈군정청 문교부 주최〉(국제극장)

1948년 10월 30일 전봉초 Cello (박성혜 반주)(배재)

1954년 8월 30일 제13주기 추도회를 개최함(香初다방)

1959년 8월 홍난파 추모 음악회 - 전국중계방송(KBS 홀)

- 1963년 8월 30일 제22주기 추도회를 개최함(중앙 공보관)
- 1963년 11월 27일 난파기념사업회 발족(난파장학금·난파음악상)
- 1965년 10월 25일 전국 문화 대훈장을 추서
- 1965년 12월 6일 홍난파.현제명 양 선생에 대한 문화훈장(대통령장) 추서 기념 음악회가 서울音大 콘서트홀에서 개최됨
- 1966년 8월 31일 제 25주기 추도회를 개최함(여반다방)
- 1968년 4월 10일 KBS(중앙방송국) 정원 내에 난파像(동상) 건립하다
- 1968년 8월 30일 수원 八達 공원 내에 노래비를 건립하다
- 1971년 _월 _일 출생지에 遺墟碑를 건립하고, 남양면에 난파회관을 건립하다.
- 1984년 4월 10일 단국대학교 구내에 <난파기념음악관> 개관과 홍상제막식.개관 기념 음악회가 개최되다.
- 1985년 4월 10일 난파기념음악관 개관 1주년 「난파탄신 88주년 기념음악회」가 개최되다
- 1987년 4월 10일 生家復元 준공식이 거행되다

1942 ~ ②

- 1946. 11. 15 第一樂季 제2회 실내악 연주회 <음악가의 집 주최> 자연장
- 第一樂季 제1회 실내악 연주회 <음악가의 경주회> 배재강당
- 1947. 1.6·7 연악원 제1회 연구 발표 대연주회(배재강당)
- 1947. 10. 11 연악원 제2회 연구 발표 연주회 "소나타의 밤"(배재강당)
- 1964. 5. 25 난파 동요 100곡집(난파 기념 사업회 편)(교학도서 발행)
- 1976. 1. 30 음악만필(개절판), 홍난파 저 (음악예술사 발행)
- 1976. 6. 15 홍난파 月光曲(汎友社 발행)
- 1983. 2. 8 홍난파 「울 밑에 선 봉선화야」 (이계홍 저)(宇石 발행)
- 1984. 9. 23 나라사랑<제52집>-난파 홍영후 특집호(외솔회 발행)
- 1985. 3. 30 홍난파 「최후의 악수」 (金鍾旭 편저/春秋閣 발행)

- 1985. 4 음악동아 특집 1 흥난파 동아일보사 발행)
- 1985. 4. 10 흥난파 산문집 「첫 무대의 기억」 (創美社 발행)
- 1985. 5. 15 畿甸文化研究 제14집
 난파 홍영후 선생 탄신 90주년 기념 특집호(인천교대 기
 전문화연구소 발행)
 세계의 악성(재판) 출판(6. 25)

1942 ~ ③

- *1940년 6월 조선교향악단 창립공연(지휘:박경호)
- *1944년 _월 _일 김성태 작곡 「교향적 카프리치오」 반주
 김동진 작곡 「양산가」 초연(신경교향악단)
- *1945. 한국 오라토리오[오]協會 창단
- *1946년 _월 _일 고려교향악단 제1회 정기연주회(계정식 지휘)
- *1946년 _월 _일 서울관현악단 창단
- *1947. · 성종 합창단 창단
- *1947 신"시"의 오기로 보임]온성 성가단 창단
- *1948. 1 국제 오페라座 「椿姫」 공연
- *1948. 5 서울 교향악단 제1회 정기공연
- 1965. 4. 10. 울 밑에 선 봉선화 = 흥난파(박용구 저)
 - 한국의 인간상 ⑤ 문학예술가 편(新丘文化社 발행)
- 1975. 7. 1. 文學思想 제34호 - 흥난파 미정리 유고 데뷔 중편
 소설 미발표 가곡집(문학사상사)
- 1975 흥난파 음악 연구(南元玉)
- 1975 흥난파 기악곡의 작곡학적 연구(洪亨三)
- 1976 흥난파 연구(李春玉)
- 1977 서양음악 도입기의 흥난파 가곡에 관한 연구(周學
 洛)
- ? 난파 홍영후 연구(韓相宇)

1942 ~ ④

연주인이면서 평론에 능한 작곡가인 흥난파 氏

- 악단 초창기에 그의 공로는 크다.- 金管(동아일보 1937. 8.

18)

- *1942. . 경성 후생악단 창단
- *1943.3. 4 김천애 제1회 독창회
- *1943. 4. 6 김천애 제3회 독창회
- *1943. 5. 이인범 귀국 독창회
- *1944. 4. 21 윤기선 Piano 독주회
- *1944. 6. 6, 7 藤原義江 독창회
- *1944. 12. 17 김순남 작곡 발표회
- *1945. 3. 30 京城 Trio 연주회
- *1945. 7. 24, 25, 26 岩本[미理 Violin 독주회
- *1948. 12 박민중 Violin 독주회
- *1949. 8 윤이상 가곡집 「달무리」 출간
- *1949. 9. 16 음악잡지 「필하모니」 창간
- *1949. 10 경성 Trio 연주회(김원복-정희석-이강렬)
- *1949. 11. 8 문교부 주최 제1회 음악경연대회
- *1949. 11. 8 한국음악가협회 결성(회장:현제명)
- *1950.5. 현제명 작곡 opera 「춘향전」 공연(서울오페라단
창립 공연)

1942 ~ ⑤

- *1943. 12. 17 李仁範 獨唱會(경성후생악단 제8회 공연)
- *1944. 12. 17 金順男 作品演奏會 (부민관)
- *1984. 1. 15 洪淑姬 교통사고로 別世함
- *1984. 5. 24. 洪文吉 別世함
玉杓(장녀)-蘭杓(2녀)-仙杓(3녀)-益杓(장남)
*난표...연세대 기악과 졸(Piano 전공)<568-0591>

*홍난파 선생 (1898-1941)(43세)

I. 제 1차 일본유학 - 귀국활동

1918(4)----- 1925(3) (7년)

II. 제 2차 일본유학 - 귀국활동

1926(4) ----- 1931(6) (5년)

III. 미국유학 - 귀국활동

1931(7)-----1941(8) (10년)

2 교육

1 연극

4 작곡

5 출판

3 평론. 문필

1. 성격

2. 교우관계 / 사제관계

3. 일화

4. (1)바이올리니스트 (2)문인 (3)작곡가 (4)음악평론가 (5)관현악지휘자
(6)음악교수로서의 평가

5. 설문

1)박윤근 2)한기주 3)안보승 4)오천석[이름 위로 줄 그어짐] 5)홍
종인 6)신봉조 7)전호윤 8)이강렬 9)김원복 10)박경희 11)전희
봉 12)윤극영[이름 위로 줄 그어짐] 13)김성애 14)이관구 15)박태현
16)이영세[이름 위로 줄 그어짐] 17)홍재유[이름 위로 줄 그어짐] 18)송
학순 19)윤태정 20)이승학 21)이유선 22)김성남 23)이석화 24)홍지
유 25)정희석 26)윤석중 27)김생려 28)이혜구 29)황문평 30)김세
형 31)최성진 32)나운영 33)이대형 34)송영호 35)임동혁

<설문>

1. 잡지 「音樂界」

2. 봉선화

1. 1899년 ○월 ○일에 온 가족이 서울로 이사했나?

2. 1911년 ○월 ○일에 Violin과 호만 제1권을 사게 되었나?

*3. 1915년 ○월 ○일에 金祥雲(1898-1926)과 결혼했나?

4. 1919년 ○월 ○일에 왜경의 눈을 피해 귀국했나?

- *5. 1922년 ○월 ○일에 다시 귀국해서 연악회를 창설했나?
- 6. 1926년 ○월 ○일에 네 번째로 渡日했나?
- 7. 金祥雲은 1926년 5월 13일에 사망했다.
- 8. 1929년 ○월 ○일에 연악회 지부(인천. 개성. 김해)를 설치했나?
- *9. 1933년 ○월 ○일에 미국에서 귀국했나? - 김세형
- *10. 1937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72일간 종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나?
- 11. 1941년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회기동에 있는 경성요양원에 입원했었나? - 10일간
- *12. 난파는 李氏夫人(1858-1908)의 소생인가?
 朴氏夫人(1886~1917)의 소생인가?(×)
- *13. 난파의 부친은 ○년 ○월 ○일에 朴氏夫人(1886-1917)과 재혼했나?
- 14. 흥덕유는 누구인가?
- 15. 흥만유는 누구인가?
- 16. 흥파동 집은?
 한치진 박사에게서 샀음/개조했음/건평 34평/수도가 없었음/바로 윗집이 윤심성(심덕氏 언니)/이웃집이 이인선 氏 댁
- *17. 석후(1883-1940)는 金氏夫人(1881-1942)과 ○년 ○월 ○일에 결혼했나?
 후처 金氏夫人(1898- ?)과 ○년 ○월 ○일에 재혼했나?
- 18. 남양 흥씨 세보(중권)에는 왜 이대형이 기재되지 않았나?
- 19. 숙임을 1984년 1월 25일 밤 9시 20분경 교통사고로 사망했나?
- 20. 숙임은 1941년 3월 3일에 洪文吉과 결혼했나? 종로 YMCA
- *21. 정임은 1962년 ○월 ○일에 ○○○와 결혼했나?
- *22. 정임은 ○년 ○월 ○일에 미국으로 이민했나?
- *23. 흥파동으로 ○년 ○월 ○일에 ○○○로 이사했나?
- 24. 난파의 제자는 누구누구인가?
 홍재유, 홍성유, 홍지유, 채동선, 문학준, 곽정순, 전희봉
- 25. 난파의 친구는 누구누구인가?
 이관구, 독고선, 이은상, 변영로, 박경호, 최호영
- *26. 새문안교회 성가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휘했나?

*27. 안동교회 성가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휘
했나?

28. 정동 14 — 창성동 149 — 홍파동 2번지의 16호

29. 악우회(정동2) — 연악회(새문안교회구내) 관수동

30. 홍지유 688-3051

홍난표 562-8841

홍익표 (1343) 42-6316 (안양 삼익 Apt. 2동 512호)

31. 숙임의 생일은? 1918년 1월 5일

32. 홍문길(洪文吉)의 생일과 사망일은? 1914.11.13. ~1984.5.24.

李寬求선생님 증언 '87. 3. 18.

① 난파의 성격

다정다감/깔끔/말이 별로 없다/말이 재미있다/남과 다투는 일이 없
었다/날카롭고(대단한 신경질은 아니다)

② 난파의 습성. 취미

당구 30 40 50 정도 / 社交춤(x) / Golf(x) / 바둑(x) / 장기(x) / 자전
거(x)

Coffee(o) / Beer(o) / 正宗(o) 몇잔정도? / whisky(x) / wine(x) / 담
배(x)

3. 일본유학 年 月 日

같이 간 것이 아님/ 2년 뒤

4. 三光

1919. 2 창간 / 4호까지/

5. 音樂과 文學

1921. 2 홍난파 · 황석우(아호 상아탑) 창간/

6. 音樂界

1925. 4 창간

7. 말 잘하는 사위

1917 발행

조선 正樂譜三篇

1917 발행

세계명작합창가집

1925 발행

8. 봉선화 작사 年度

새문안 예배당 당시 / 예배당 부속 소학교(유치원)에서 김형준 선생
이 가르침

9. 「난파」 雅號사용 年度

10. 난파의 신앙생활

새문안교회 성가대 지휘

11. 외국소설 번역은 重譯인가?

대부분 중역/일본말을 잘했다

12. 동경 한국 YMCA에서의 활동?

二八독립운동 참여

13. 난파의 交友關係

이관구/변영로/이은상(京保)/오천석(京保)/이경구/朴勝喆(勝喜의
모) 朴正陽의 아들, 초대 무궁공사/독고선(京保)

⑭ YMCA 중학부 → 100여명 입학/졸업은 5명

金東吉/李謙求/난파/이관구/金賢洵/

졸업사진(이상재[이름 위로 줄이 그어져 있음])/李敎承/金昶濟/陸定
洙(학감))

⑮ 흥준(준) ... 난파의 부친/국악에 조예가 깊었음, 사랑방 합주를 즐겼
음./진문구["거문고"를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임.], 양금, 통소)

사랑방에 국악기가 많았음

흥석후 ... 가야금/거문고

난파 ... 양금

? 東京유학시 수주가 난파의 신세를 많이 졌음

수주가 난파의 카우드 보턴을 빌려 전당 잡힘

수주가 정구창(변호사)의 통역으로 일본에 갔을 때 三越에 가서 비단
[원래 "공단"이라고 적혀진 위에 기록됨]팬티를 사 입었다.

? ★매일신보 개원["객원"의 오기?] 기자 ... 소설창작/소설번역

洪載裕翁 증언

'86. 6. 10. 西部二村洞 宅 訪問

1. 72일간 수감
 건성 늑막염 재발
 미국유학시 자동차 교통사고로 늑골(?)을 다친 일이 있음
2. 결핵균이 머리로 들어가 고통 끝에 사망
3. 일본 유학시 여름방학 때마다 귀국하여 지방순회 음악회를 연
4. 숙부지만 정말 天才야!
 洪季厚 氏 2年前 別世
 洪恩裕 氏 水厚宅養, 美國行 死亡?

(1898.4.10~ 1941. 8. 30)

「홍난파의 달」 선정에 즈음하여

1. 작년 1991년 ... Mozart 서거 200주년
 홍난파 선생 서거 50주년
 8월을 「안익태의 달」로 선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었다.
2. 전설적이고, 신화적인 존재인 왕산악.우륵.박연(난계)을 국악의 3대 악성이라고 하는데, 홍난파야말로 우리나라의 <악성>으로 모셔야 할 것이다.
3. 그 외
 1. 우리나라 최초의 Violinist요
 2. 우리나라 최초의 기악곡을 작곡한 분이요
 3.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평론가요
 4.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研樂會>라는 음악교육기관을 창설하여 후진양성과 음악출판사업을 활발하게 하신 분이다.
4. 1919년<2.8독립선언>때 일본.동경에서 Violin을 저당 잡혀 독립운동을 외치는 전단을 만들어 뿌렸고, 1941년 <홍사단사건>으로 72일간 종로경찰서에서 고생하시다가 풀려난 뒤 경성요양원(현 위생병원)에 10일간 입원했다가 퇴원한지 5일 후에 별세하셨으니 그는 애국자이다.

※그는 시간을 여유있게 안 가져 바빠 아침식사를 하고 승냥은 현관에 서 마셨으며, 「나이트 캡」을 쓴 채 학교 가는게 보통이었다.

이 무렵 그는 또 식성이 좋아 처음 일본에 갔을 때 하숙집에서 주는 공

기밥을 아홉 개나 먹어치우자 다음 날 아침 하숙주인이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김영환 선생 증언〉

※난과는 「구니다찌」에 다니면서 바이올린 연습시간 외에는 책을 들고 놓지 않았다. 돈만 생기면 책을 사는 게 일이어서 음악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해서도 박식했다. 성격은 온순하고 생전가야 남에게 성내고 다투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장난기가 좀 있어 -나중에 그의 조카며느리가 된 김원복에게도- 기숙사에서 복면을 하고 숨었다가 깜짝 놀라게 하는 등 짓궂은 장난을 좋아했다

〈김영환 선생 증언〉

※나비 넥타이에 매꼬모자, 깔끔한 옷차림에 단장을 짚고 걸어가는 멋장이 신사의 모습. 우울한 날이면 하루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다가도, 일단 기분이 풀리면 기발한 해학과 유머로 좌중을 폭소의 도가니로 몰아넣기도 함

三光 … 4호로 폐간

音樂界 … 4호로 폐간

1934.7월호 (월간 「音樂」 창간호)

祝辭(홍난파 추사… 中庸之道를 取하라 참조)

1. 미국에서 귀국 도중 「하와이」에서 Violin 독주회를 가진 것이 몇 월 며칠인지?

2. 長谷川町에 있는 「樂浪구락부」속에서 Violin 연주회를 신설했는데 사실인가?

〈이흥렬 증언〉

中央保育學校

교장/朴熙道(33人 중 한사람)

교감/독고선

교수/車士伯.李鍾雨.王濬珍.조병옥.방정호.白貞鎭.李亨雨.尹白南.홍

난파.金永愛.홍성유.김원복

※ _년 _월 _일

쑤螢喆이 音樂博物館 설치를 기도했으나 좌절되었다

※ _년 4월 25일 「모기레프스키 Violin독주회」 (부민관)

Piano : 로히텐베르히

* 그랜드 컨서트 ... 2.21 (YMCA강당)

* 研樂會 정동 1

종로2가 45 (德元빌딩 3층)

서대문정 1의 50

* 羅素雲, 森川潤.

그는 음악회 포스터를 직접 그릴 정도로 재주가 많았고, 집안에 암실을 만들어 놓고 직접 사진을 빼기도 하고, 베이비 당구대, 서양카드 등을 갖다 놓고 다양한 취미생활을 했다.

<김영환 선생 증언>

※每日新報 記者生活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엮나?

※소위 「마티네」 사건은? _년 _월 _일에 단성사에서 열렸나?

※단성사 집세 60원

경성악대출연료 50원

인쇄비,인건비 30원

입장객은 모두 7인뿐

결국 이 돈을 갚기 위해 1년 동안을 동분서주하며 모두 갚고야 말았다

부록

사진

음악회 프로그램

자필악보
자필원고
자필편지
작곡집 표지
「哀愁」악보
Beethoven : Violin Concerto 연습악보
Dvorak : Indian Lament
찬송가 편곡
졸업장
Sherwood Music School 성적표
문화훈장

[신문 스크랩]

洪蘭坡 평가 긍정적

○…北韓은 작곡가 홍난파(1897~1941)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연구작업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선세계」誌 최근號가 밝혔다. 이 잡지에 따르면北韓은 홍난파가 작곡한 대부분의 가곡이 亡國人의 애환을 담고 있는 이유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그 가운데서도 봉선화, 옛 동산에 올라, 고향의 봄, 「봄처녀」 등이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거론되어 있다는 것.

寺田豊次 氏 증언

1. 홍난파의 Violin 선생 - 末吉雄二(1895?~1949.12.)
新京交響樂團 樂長/ 탄생 1936. 2. 3
2. 東京 シソフオニ?? 團員(안병소 氏 後任)
3. 新交響樂團 엑스트라 Piano Trio 演奏會
Piano 高折宮次, Violin 末吉雄二, Cello 中島方
曲目 Beethoven op.70, No.1, Mendelssohn op.66, Arensky op.32
4. ※홍성유의 Violin 선생

末吉雄二 → ニコラ・ミエルプラット
ミエルプラット?

※專攻實技 點數에 대해서는 김원복 선생께 문의하도록

※朴啓成의 Piano 선생 木神(サカキ) 原(ぺろ)直

※宗倫安(宗知康)

??145 東京都大田區田園調布 2-48-14

※JODK 관현악단 멤버는?

1st. Violin ... 김생려

Clarinet ... 오화섭

Piano ... 이홍렬

Cello ... 김태연

지휘 홍난파

※미국에 가서 처음에는 박경호 氏와 같이 기거하며 썬시내티 음악학교에 다니다가 Chicago에 있는 Sherwood 음악학교로 옮겼다.

※1920년(?) 여름 김형준 氏 집 앞뜰에 「봉선화」가 활짝 피었다. 김형준은 나라 없는 처량한 백성의 신세를 봉선화에 비유해서 그의 생애 처음 작사며(?) 마지막 작사인(?) 「봉선화」를 지었다. 난파는 이 가사를 보자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Melody가 떠올랐다.

〈김영환 선생 증언〉

※樂聖 「洪蘭坡」 - 생애와 예술

[I] 생애편

1898~1916 (18년간)

1916~1924 제 1기 (8년간)

1924~1932 제 2기 (8년간) (25년간)

1932~1941 제 3기 (9년간)

[II] 예술편

연주활동 - Violin 독주, 난파 Trio, 성서 Piano Trio, 경성방송관현악단

작곡활동 - 조선동요백곡집(상편), Violin 독주곡 4편, 조선동요백곡집(하편), 봉선화, 조선가곡작곡집 제1집, 관현악조곡, 나그네의 마음(관현악부 독창조곡)

문필활동 - 잡지 「삼광」, 「음악과 문학」, 「음악계」

창작소설 「처녀혼」, 「허영」, 「향일초」, 「폭풍우 지난 후」, 「최후의 악수」, 「청춘의 사랑」

번역소설 「어데로 가나」, 「첫사랑」, 「매국노의 자」, 「나나」, 「청년입지론」

음악만필, 세계의 악성, 악전대요

출판활동 - 통속창가집, 조선정악보 3편, 말 잘하는 사위, 광익창가집, 세계명작합창가집, 조선동요백곡집, Violin 독주곡 4편, 세계명작가곡선집, 조선가요작곡집 제1집, 특선가요곡